

확 달라진 호랑이 뒤편 ‘용병 리마’

확 달라진 KIA타이거즈가 프로야구 500만 관중시대를 이끈다.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에서 연일 좋은 경기를 펼치며 올 시즌 성적 돌풍과 함께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KIA는 얼마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올 시즌 관중동원 목표를 31만 5천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만7천232명보다 무려 52%나 증가한 수치지만 목표치 달성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일단 불거리가 풍성하다.

KIA는 지난 시즌 ‘꿀찌’라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빅쇼터’ 최희섭의 영입으로 짝짝한 관중 동원 효과를 봤다. 올 시즌에는 빅리거 서재응, 호세 리마, 발데스까지 가세했다. 국가대표 이용규와 한기주도 대만에서 벌어진 올림픽 예선에서 국민 스타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고, 23년 만에 KIA의 신인왕 타이틀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괴력의 나지완과 날쌔돌이 김선빈의 인기도 심상치 않다. 게다가 야구 팬들의 영원한 신이종범도 견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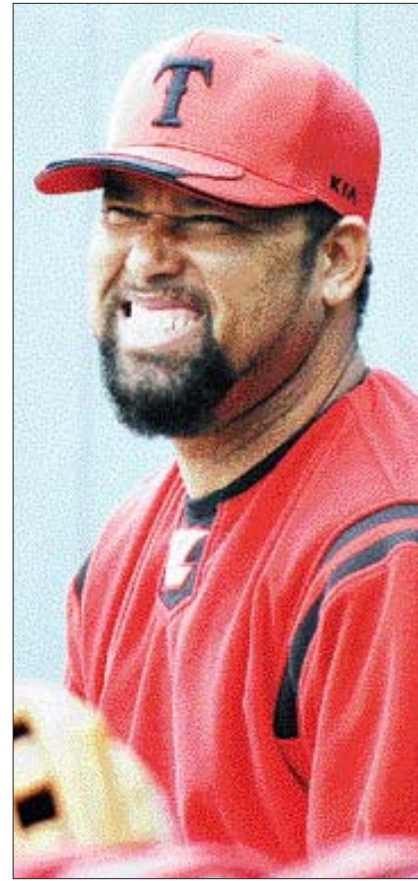
이중에서도 가장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는 역시 용병 투수 호세 리마다. 리마의 명성은 이미 전지훈련때부터 자자했다. 리마는 탁월한 사교성으로 순식간에 KIA 선수들부터 사로잡았다.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네고, 포용을 하면서 익살스런 표정을 짓는다. 적극적인 성격에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유창한 발음으로 한국 말도 곧잘 한다.

긍정적인 성격에 대한 일화도 있다. 리마는 림블이 일본 전지훈련 중 유일한 소일거리였던 게임장 나들이를 즐겼다. 게임장을 다녀오면 돈을 뒀다는 자랑도 잊지

좋은 플레이에도 가장 열렬한 반응을 보인다. 관중석으로 슬쩍 공을 던져주기도 하는데 리마는 경기장에서 엉덩이춤까지 선보여 팬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성적도 괜찮다. 시범경기 2경기에 나와 11이닝 동안 7피안타 2사사구 1실점으로 0.82의 방어율을 보이며 1승을 챙겼다.

KIA에는 그동안 레스, 리오스, 그레이



유쾌한 성격으로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용병 투수 호세리마.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탁월한 쇼맨십과 명품投 ... 분위기 쇄신

광주구장 을 30만 관중 동원 대박 예약

않았다. 게임장에서 구슬 박스를 즐기게 늘어놓은 리마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기에 다들 리마가 엄청나게 큰 돈을 딴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리마만의 독특한 계산법이 있었다. 기계에 넣은 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배출된 돈만 계산하는 ‘리마식’ 계산법이 그것이다.

유쾌한 리마는 덕아웃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크다. 어린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면 ‘낮게 낮게’를 외치며 응원을 보내고,

심어와 같은 명품 용병 투수들이 다녀갔다. 하지만 점잖았던 이들에 비하면 리마는 확연히 다르다. 화려한 쇼맨십과 뛰어난 사교성으로 팀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은 명품 중에 명품이다.

리마가 홈경기 첫 선발로 나선 지난 15일에는 주말을 맞아 2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리마타임’을 즐겼다. 팬들은 올시즌 리마의 ‘활약’과 ‘익살’을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진흥고 백어진 2타점 결승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5-3 청원고 꺾고 8강

광주 진흥고가 6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1회전에서 서울 청원고를 5-3으로 꺾었다.

진흥고는 20일 인천 송의구장에서 벌어진 청원고와의 경기에서 3-3 동점 상황이 이어 지던 7회말 주장 백어진(3년)의 2타점 결승타로 5-3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 4번 타자 최천만(3년)도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정훈(2년)은 감기 몸살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발 유영준(3년)에 이어 4회 마운드에 올라 4와 3분의 1이닝 동안 1안타와 8

탈삼진으로 호투해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날 진흥고는 6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기동력도 과시했다. 진흥고는 22일 같은 경기장에서 청주 세광고를 7회 콜드승으로 제압한 대구 상원고와 2회전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로써 화산고와 순천 효천고에 이어 진흥고도 무사히 황금사자기 2회전에 안착했다. 한편 광주 동성고는 22일 서울 덕수고와 경주고의 승자와 맞붙고, 광주일고는 23일 제주고와 경기 충훈고와의 승자와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병현, 양키스전 피홈런 2방

10이닝 4실점 패전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잠수함 투수 김병현(29·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시범경기에서 10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얻어맞는 쓴맛을 봤다.

김병현은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턴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시범경기에서 소속팀이 9-8로 앞선 8회 초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했지만 10이닝 동안 홈런

2개 등 안타 3개와 볼넷 한 개로 4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김병현은 8회에 9-9로 동점을 내준 뒤 1사 후 양키스의 오른손 타자 니그리에게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맞았고 2사에서 채드 롤러에게 다시 솔로홈런을 빼앗겼다.

시범경기에서 4차례 등판한 김병현의 평균 자책점은 18.00까지 치솟았다. 경기는 양키스가 12-9로 승리했다.



통증을 참으며... 김연아가 20일(한국 시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벌어진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중 여자 쇼트프로그램을 열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역전 우승 다시 한번”

세계 피겨선수권, 쇼트프로그램 5위 ... 프리스케이팅서 매직쇼 기대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자신에게 부담을 주기 싫지만 우승에 대한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고관절 통증을 딛고 5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친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과연 역전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일(한국 시간) 끝난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이탈리아의 카롤리나 코스트

너(64.28점)와 김연아(59.85점)의 점수 차는 4.43점이다. 배점이 높은 프리스케이팅을 고려하면 극적인 우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시니어 무대 2년 차를 맞은 김연아에게 ‘역전 우승’이란 말은 친근한 존재다.

2006년 12월 2006-2007 ISU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선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65.05점으로 ‘통감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69.34점)와 안도 미키(일본·67.52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허리 부위에 테이핑을 한 채 프리스케이팅에 나선 김연아는 무감점 연기로 184.20점을 기록,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넘어진 아사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에서도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점프 과제에서 트리플 플립을 뒀 뒤 테이핑이

맞지 않으면서 이어진 연속 점프를 싱글로 처리하고 말았다.

여기에 스핀까지 최하인 레벨 1을 받으면서 카롤리나 코스트너와 캐롤라인 장(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승부를 뒤집고 이번 시즌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역전 행진’의 발판을 놨다.

이렇듯 시니어 무대에 접어들 뒤 두 차례나 승부를 뒤집는 ‘깜짝 마술’로 피겨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줬던 김연아에게 4.43점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관절 통증을 고려해 프리스케이팅에서 기본 점수가 5점인 트리플 루프 대신 더블 악셀(3.5점)을 뛰고 체력적 부담이 따르는 카멜 싯스핀을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교체하는 등 고득점보다 안전성 위주로 안무를 바꾼 게 어떤 효과를 낼지 걱정스럽다.

더불어 쇼트프로그램에서처럼 갑자기 통

증을 느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실수없이 모든 연기 요소를 마친다면 평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수를 바탕으로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우승까지 바라보는 ‘김연아표 매직쇼’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 지도와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독펠러 회원권
최저 10% 할인 회원권, 비 상공회비에서 최대 10% 할인, 모이레프스타일 무료 착용비 지원, 상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베소가 되었습니다.
정원 문의 (062)351-0095

시범경기 꿀찌

요미우리 망신

이승엽 4타수 무안타

6년 만에 일본프로야구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1992년 이후 16년 만에 시범경기 꿀찌가 확정됐다.

요미우리는 전날 야쿠르트 스왈로스에게 1안타 졸공 끝에 0-3으로 패해 2승3무10패로 12개 구단 중 시범경기 최하위가 됐다. ‘스포츠투치’ 등 일본 스포츠전문지가 20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2승도 퍼시픽 리그 팀에 거뒀을 뿐 센트럴 리그 팀에는 전패했다. 팀 타율도 0.208로 역시 가장 빈약했다.

요미우리는 야쿠르트전에서 왼쪽 다리 정강이 부상 중인 포수 아베 신노스케를 제외하고 개막전 라인업이 출출동했지만 오가사와라 미치히로가 안타를 때렸을 뿐 모두 침묵해 정규 시즌 준비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다.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 참가 후 18일 주니치 드래곤스전부터 시범 경기에 참가 중인 이승엽(32)도 두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볼넷 1개에 그쳤다.

이형택 8강 좌절

ATP 퍼시픽 라이프오픈

5위 꺾고도 35위에 분패

이형택(32·삼성증권)이 준메이저급 대회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퍼시픽 라이프오픈(총상금 358만9천달러)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 52위 이형택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 테니스장에서 열린 남자단식 4회전에서 스타니스라스 바빈카(35위·스위스)에 1-2(1-6 7-5 4-6)로 제 탈락했다.

그러나 그랜드 슬램 대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등급인 사실상의 메이저 대회에서 16강에 오른 이형택은 다시 40위권 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회 3회전에서 세계 5위 다비드 페레트(스페인)를 꺾는 등 상위 랭커 세 명을 잇따라 제압하며 기세를 올린 이형택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해 27일부터 시작되는 소니 에릭슨 오픈(총상금 377만달러)에 출전한다.